

의정부에서 사상 첫 3선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의정부가 낳은 정치적 인물 문화상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제는 의정부를 위해 일할 때라며 한표 한표를 부탁한 결과 의정부시민들은 이에 화답해 당선이라는 영광을 안겨 주었다. 3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부시민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일까? 제17대 국회의원 문화상 당선자의 면면을 보도함으로써 향후 의정부를 새로운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로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편집자주〉

제17대 국회의원 의정부시 갑 선거구 문화상 당선자

“위대한 의정부시민 여러분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역시 의정부시민의 힘은 위대했고 오늘의 승리는 위대한 의정부시민의 승리입니다. 오늘 치른 선거는 선거본연의 의미에 더하여 ‘새역사’를 여는 더 큰 의미를 확인한 선거였습니다.

의정부시민과 우리 국민은 거대야당의 횡포를 표로써 심판한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의정부시민과 우리국민은 부패와 흑색선전으로 얼룩진 낡은 정치를 표로써 단죄한 당당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세력이 다시금 국민을 기만하고, 공룡처럼 부활해서 국회를 지배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나아가 사실상 정권을 찬탈하려던 음모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아래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당의 승리는 정치개혁을 완성해서 새로운 정치를 펴나가라는 시대적 요구에 다름 아닙니다.

오늘 저의 승리는 참여정부 핵심에서 일

당선인사



한 경험과 힘을 이제는 지역발전에 쏟아내라는 엄정한 ‘시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저는 이미 이번 선거를 ‘역사’로 규정할 바 있거니와 이번 선거로서 의정부 정치사에 ‘최초의 3선의원’을 탄생시킨 뜻깊고도 아름다운 역사가 창출됐습니다. 따라서 저

는 의정부출신 정치인중 ‘최초의 3선의원’을 만들어준 의정부시민 한 분 한분께 감동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선거기간중에 내걸었던 선거공약은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최선을 다해 지킬 것임을 약속합니다.

2004. 4. 15

17대 총선 의정부 갑 선거구 당선자 문화상 올림

문화상 프로필

- ▶ 1945년 3월 3일 의정부 출생
- ▶ 양주(현 중앙)초등학교 졸업
- ▶ 경북중 · 고등학교 졸업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 해군본부 법제 담당관/중위
- ▶ 의정부고등학교 육성회장
- ▶ 의정부 탁구협회 회장
- ▶ 의정부 민속보존회 초대 고문
- ▶ 학교법인 경해학원 이사장
- ▶ 서울법대 64동창회 회장
-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
- ▶ 민주연합청년동맹회 중앙회장
- ▶ 파스코리아나 21 이사장
- ▶ 한일 · 한중청년회의소 정상회담 한국대표
- ▶ 국제청년회의소 아 · 태총회 한국대표 단장
- ▶ 국제청년회의소 세계총회 한국대표 단장
- ▶ 민간외교차 46개국 순방
- ▶ 의원외교차 12개국 순방
- ▶ 보안사 사찰대상/사찰번호384번
- ▶ 정치활동 규제/2차 해금
- ▶ 정치보복 세무사찰/경영권 상실
- ▶ 고시합격(1970.1차 3급임용시험)임용탈락
- ▶ 민주화운동 이류 투옥/계엄법, 포고령 적용
- ▶ 제14대 국회의원
- ▶ 국회 내무 · 행정경제위원
- ▶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직대)
- ▶ 새정치국민회의 의정부시지구당 위원장
- ▶ 새정치국민회의 기획조정실장
- ▶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특보단장
- ▶ 민주당 총재 비서실장
- ▶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 ▶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 ▶ 제16대 국회의원
- ▶ 새천년민주당 대선기획 단장
- ▶ 참여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
- ▶ 대통령 정치특별보좌관(현)
- ▶ 열린우리당 상임고문(현)
-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2000년)
- 국민의 정부의 개혁방향과 과제/공저 (1999년)

해방동이 4인방의 도원결의

64년 따뜻한 어느 봄날 늦은 오후였다. 서울의대 합춘원 히포크라테스 동상이 있는 숲 속에 네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법대 1학년 문화상, 조병륜, 최기선, 홍정표였다. “여기서 한 우리의 맹세는 평생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일신의 안위나 영달을 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위해...” 젊은 민족주의자들의 도원결의, 아니 ‘합춘원결의’였다.

출신은 물론 개성까지 판이한 이들의 민족주의적 의기투합, 이들의 기개는 하늘을 찌를 듯 했다. 그리고 훗날 전개되는 서울 법대 학생운동의 폭발적인 에너지원이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서울법대 학생운동의 에너지원

민족이 일제의 사슬에 해방되던 해에 태어난 이들은 민족사의 영욕을 상징하는 세대답게 한일회담 반대 데모가 휩쓸 때 해 대학생이 됐다. 64년 한일회담 반대투쟁, 65년 한일협정 비준저지투쟁, 66년 삼성재벌 밀수규탄, 67년 6·8부정선거규탄 등 대학생활의 미래를 미처 설계하기도 전에 데모의 격랑에 휩싸여 졸업할 때까지 데모로 지냈기 때문이다. 의료 문치진



이들의 우정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문화상은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의 주역으로, 최기선은 인천시장 등 행정가로, 조병륜은 학계의 실력자로, 홍정표는 외교관으로 각기 자신의 소속된 무대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의정부의 아들 문화상은 유달리 사고가 깊었고 논리가 정연했으며 깊은 역사관도 갖고 있었다. 더욱이 경북고 학생회장을 지낸 만큼 수장의식도 갖추고 있었다.

투옥, 고문 그리고 세무사찰

그들의 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정치권력의 힘은 무소불위, 바로 그 자체였다.

피어오른 한줄기 ‘불꽃’

92년 문화상은 마침내 ‘국회진출’에 성공했다. 이미 4년전 뼈를 깎는 아픔을 맛봤던 그는 특유의 독심하나로 ‘같은 하나 오직 한

문화상이 걸어온 길

길’만을 향해 뛰고 또 땀 땀의 결과였다. 그때도 그랬다.

‘한수이북지역의 ‘독특한 정서’는 그를 두고 ‘인물은 훌륭한데 당이 문제’라며 ‘발(정당)을 갈아 탈 것을 끊임없이 종용했다.

그때마다 문화상은 어금니를 물어야 했다. ‘지역살림 나라살림 꾸린다는 사람이 어찌 이당 저당 오락가락할 수 있겠는가’며 ‘정치적 지조’를 생명처럼 간직해 온 인고의 결과였다.

원내에 진입한 문화상은 마치 물을 만난 고기처럼 눈부신 활약을 보였다.

「한겨레 21」(95.10.19.)은 행정위 국정감사에서 “문화상 의원이 압도적 점수차로 수위를 지켰다”고 보도했고, 당시 중앙일보도 “국회



야당 총재 비서실장 ‘3대 불가론’

그는 대선에서 YS에 패한 뒤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영국 유학길에 오른다. YS의 ‘3당 야합’에 반대한 이기택은 DJ가 떠난 신민당과 당대당 통합을 이뤄 총재에 취임하고, 문화상을 비서실장에 발탁하는데, 이때 이기택은 뜻밖의 삼고초려(?)를 하게 된다.

바로 문화상이 비서실장을 할 수 없는 ‘3대 불가론’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첫째, 내 이마에는 DJ라고 찍혀 있다. 나는 DJ가 정계복귀하면 DJ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비서실장을 할 수 없다. 둘째, 나는 하루에 담배 3갑 이상을 피우는 도둑 진영은 앞서거나 뒤서거나 정부 요직을 독식하는데, 이를 빗대 국회의원 문화상은 의정단상에서 ‘이제 상도봉에 남은 것은 강아지뿐’이라고 일갈, 도하 언론의 지면을 장식하게 된다. 호사다라 말한 이 누구이던가.

문화상은 의정활동 평점 A+이라는 높은 점수를 때내고도 96년 4월 치른 제 15대 총선에서 예기치 못한 일격을 당하고 만다. 외길 정치인 문화상, 그 예사롭지 않은 정치 여정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기에 충분했다.

“동생의 부모”라거나 “관문점 충격 사건” 등은 차리리 사치스런 제멋대로 달려가 도울 것이니 함께



가자. 또 매일 아침 집에 올 필요도 없고, 나 역시 담배를 좋아하니 같이 피우면 될 것 아닌가

“호랑이는 굶어 죽어도 풀을 먹지 않는다”던 정치인 이기택의 비서실장을 맡게 된 뒷얘기다. 시대는 문민정부, 대권 게임의 승자 상도봉 진영은 앞서거나 뒤서거나 정부 요직을 독식하는데, 이를 빗대 국회의원 문화상은 의정단상에서 ‘이제 상도봉에 남은 것은 강아지뿐’이라고 일갈, 도하 언론의 지면을 장식하게 된다. 호사다라 말한 이 누구이던가.

문화상은 의정활동 평점 A+이라는 높은 점수를 때내고도 96년 4월 치른 제 15대 총선에서 예기치 못한 일격을 당하고 만다.

외길 정치인 문화상, 그 예사롭지 않은 정치 여정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기에 충분했다.

새로운 단장으로 신선함이 배어나는 ‘하모니웨딩홀·부페’

◇출장부페 - 개업식·준공식 행사시 고사떡·돼지머리 서비스//넓은 주차장 보유(100여대 이상)◇



포천에서 운천방향으로 성동검문소에서 문암삼거리 사이

- ◆약혼식 · 상견례 행사시
 - 당일시진 무료촬영(앨범제작 가능)
 - 식사 무료대접
- ◆결혼식 행사시
 - 김치냉장고 증정
 - 신혼여행용 커플룩 증정
 - 드라이이이스, 비누방울, 페백실 사용료 무료
 - 확대액자 서비스, 병풍액자 서비스
- ◆회갑 · 고회연 행사시
 - 김치냉장고 증정
 - 아이스크림, 현수막 서비스
- ◆돌 · 백일 행사시
 - 돌 · 반지 1돈 증정 또는 동물캐릭터 식탁 증정
 - 차량용 액자 서비스
 - 돌잡이 이벤트 행사 서비스

